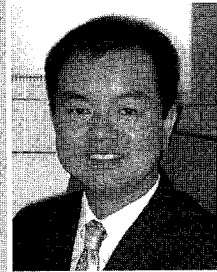


# 젊은날의 스승, 김병곤 선배



전 민통련 정책실 정책위원 오기출

1961년생, 연세대학교, 민청련 정책위원 및 상임정책위원, 전민련 정책기획간사,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주연사추진사업의 집행위원장, 현 (사)시민정보미디어센터 사무총장

그는 가혹한 압제가 지배하는 세상과  
압제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존재의 이유를 갖고서 짧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정성껏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선배 이야기를 하고 싶다.

1985년 10월에 나는 김병곤 선배를 만났다. 지금은 서대문 독립공원으로 변했지만 당시에는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서대문 구치소에서였다.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서울대경영학과 82학번인 김태룡과 화단을 거닐면서 이야기하는 분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이 곱고 기꼴이 장대하여 민주화운동하다가 들어온 교수려니 했다. 그렇게 그 날은 지나쳤다. 그러다 안양교도소로 이감을 하고 먼저 들어오신 분들과 인사를 하는데 바로 옆방에 그 잘생긴 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고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런데 교수가 아니고 민청련 부의장 김병곤 선배라고 했다. 그리고 녀달을 같이 생활하면서 틈만 나면 병곤이형 방에서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녀달 동안 밀도높은 인생수업을 했고 나는 변하였다. 전투로만 단련된 과격하고 성급한 젊은이가 아니라 깊이 고뇌하면서도 넉넉한 병

곤 형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 동안 여유없이 최루탄의 한가운데서 살아왔지만 선배들의 삶을 깊이 접하지 못해 아직 어리고 미숙한 사람을 한순간에 진지한 인간으로 변화시켜버린 선배에게 세월이 한참 지나 이제 돌이켜 보면 무척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병곤 형과 다시 만난 87년 7월 9일 이후 돌아가시는 날까지 함께 하면서 그를 배웠고, 그 이후 지금까지 선배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면이 더 많다. 그가 치열한 실천가라서 언행일치를 하는 신뢰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매력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나는 주변의 모든 존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인간다움으로 밖에 묘사하지 못하는 표현의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 빼속 한마디 한마디까지 저며오는 그리움을 갖게 하는 선배에게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젊은날의 스승, 김병곤 선배!

24년 전, 학생운동가로 민주화운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고픈 고백이 있다. 나는 81년 대학에 입학하면서 외국에 유학도 갔다오고 해서 경제학 교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다가 학생운동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 경험삼아 하려다가 그것이 생활이 되어 현재까지 시민운동가로서 일상을 경영하고 있다. 누가 '초심을 지킥시다.' 라고 하면 '나의 초심은 6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었는데...' 라고 혼자 조용히 웃곤 한다.

어쩌면 삶의 밀도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세상을 돕는다는 기쁨과 보람도 컸지만 미성숙한 자아와 관계로 인해 허전함, 허망함, 패배감도 그만큼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기간을 함께 보낸 가족, 선배, 친구, 후배들에게 더 열정적으로 더 최선을 다해 돕지 못한 점이 언제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맺어온 관계에서 이 쉽고 그리움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싶다. 그 대상은 첫사랑의 연인일 수도 있고 멀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도 있겠다. 그리고 깊은 뜻을 나눈 마음의 벗도 있겠고, 그 중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그리운 사람도 있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사람도 있다.

나에게도 처음에는 큰 산으로 다음에는 큰 허전함으로 지금은 큰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김병곤 선배'이다. 지나친 사랑일까. 오히려 진심어린 사랑이고 그는 이런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닐까 한다.

요즈음도 김병곤 선배만 떠올리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이 흘러나온다. 김병곤 선배의 이력을 대략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그는 1953년에 경남 김해 진영 촌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촌사람이 71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한사회(한국사회연구회)라는 70년대와 80년대 학생운동 역사의 대표적인 서클(동아리) 지도자로 치열한 삶을 시작했다. 74년 민청학련사건의 주동자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사형이라는 큰 선물을 주어서 영광입니다.”라는 말로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다 한다. 나는 당시 중학생이라 경험하지 못했는데 김지하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그랬다고 한다.

그 이후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청련, 민통련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주화의 굵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다가 87년 노태우 정권의 부정투표를 폭로하고 노태우의 당선을 무효화하려했던 상징적 사건인 구로구청민주화항쟁을 이끌다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것이 김병곤 선배에게는 민주화관련 여섯 번째 수감이었다. 6개월 이후 교도소에서 위암 판정을 받고 2년 동안의 투병 끝에 90년 12월 7일,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신독재가 시작된 1972년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여 군부독재가 마감되는 시점에 홀연히 떠난 선배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앞장서 이루어 가는 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을까? 병곤 선배는 병상에서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언제나 병상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로했다.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로의 따스함과 향기를 체험한 것이 이때였다. 위로와 격려의 힘이 얼마나 힘찬가를 알게 해 준 시간도 이때였다. 현대사와 함께 한 그의 이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희망과 열정넘치는 ‘의로움’이 아니었을까. 그는 가혹한 압제가 지배하는 세상과 압제의 아픔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치유하기 위한 존재의 이유를 갖고서 굵은 인생을 누구보다도 정성껏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선배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처음부터 밀도있는 만남을 해온 나의 경우 김병곤 선배를 만났다는 사실 하나로도 운이 좋았다고 본다. 87년 7월, 8월이 되면서 선배는 민청련과 민통련에서의 양쪽 역할로 몸이 매우 바빴을 때, 아무래도 당분간 민청련보다 민통련에서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선배가 맡기로 한 민통련 정책실을 돕겠다고 자원해서 나섰고, 그 이후 자주 만나 정책자료에서부터 정세분석, 세력화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면서 정책실 팀장이 풍부한 판단을 하는데 최선의 조언을 했다. 밤을 새는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기쁘고 보람됨이 더 컸다. 사실 현실

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했기에 도우려 간 내가 선배에게 훨씬 큰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안내를 했다. 안양 민청련을 만드는 에이전트로 최경환 선배와 함께 활동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고 이를 처음부터 조직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이런 경험은 이후 어떤 조직을 만들어도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선배의 도움으로 만난 민청련의 오세중 선배의 탁월하고 집요한 정세분석 훈련과 정책개발 훈련은 점차 예지력과 현실 분석력을 길러가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이 때에도 선배는 글 하나하나를 읽고 방향을 제시했다. 알아서 했겠지하면서도 정책실에서 나오는 팜플렛 하나 그냥 내보내는 적이 없었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

그런데 긴 시간 읽고 나오는 지침은 의외로 본질에 접근하는 한마디였다. '이것을 이렇게 고치고 저것을 저렇게 고치고'가 아니라 한마디, 한문장으로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 한마디는 글 전체의 기초와 구성을 모두 바꾸어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87년 10월 25일인가 양 김이 참여하는 고대집회에 10만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에 대한 평가를 정책실에서 맡았다. 나는 양 김의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11월 9일에 있을 학생들의 대선집회 방향을 양 김의 단일화로 정리하여 문건을 만들었다. 김병곤 선배는 짧지않은 문건을 두세 번 읽고서 "우리가 양 김 단일화로 큰 방향을 맞추는 것이 맞는가?"를 질문했다. 깊이 고뇌하지 않고 "요즈음 다 그렇게 하는데요."라고 하자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다. 그러고는 어리벉벉하게 서 있는 나에게 "반전두환, 반노태우, 군부독재종식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어떨까?"를 물었다. 양 김 단일화가 승리를 위해 유일하고 당위적인 과제로 본 당시의 문제의식이 한방에 깨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양 김의 단일화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당당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힘이 모이고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집중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앞을 가렸던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다. 선배는 양 김 단일화를 둘러싸고 당시의 혼란스러울 수 있는 사태를 수습할 방책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양 김 단일화가 자발적으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러한 본원적인 과제를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양 김 단일화를 압박하겠다는 선배의 의지가 아닐까 한다. 물론 선배가 이런 의중이었던지는 아직도 모른다. 다만 그 당시에 그 한마디가 답답했던 안개를 확 걷어내고 새로운 열정을 갖도록 해 준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것이 그의 매력이었다.

누구나 선배와 대면했을 때 그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고 세월을 험하게 살아온 활동가치고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말이 별로 없는 분임을 느낀다. 선배의 속깊은 열정이 드러날 때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모두 기억이 날 정도로 힘이 있고 명백했다. 아직도 선배의 표정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이미지로 떠오른다. 선배는 거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 언행일치의 전형이었다. 말했으면 반드시 실천했고 혹시 이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명백할 경우에만 이를 변경했다. 아울러 무엇이든지 나홀로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도 본인이 숭선하여 실천을 했다.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다. 언제나 선배가 큰 걸음으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 사소한 것에는 무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86년 당시 안양교도소에는 면회를 오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에게 고추장부터 영치금까지 챙겨주고 바깥에 연락을 하는 굳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선배였다. 학생들이 재판이 있으면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교수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분도 선배였다. 물론 바깥에서 박문숙 형수가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선배의 배려하는 마음은 우리 후배들을 숙연하게 했다. 그리고 선배가 암 투병을 하다가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20대 후배들이 자주 찾아갔는데 마침 큰 비가 내려 우산이 없어 걱정하자 우산을 받쳐서 버스 타는 데까지 불편한 몸으로 일일이 배웅하는 모습은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곡하게 말을 해도 선배의 진심어린 태도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선배가 투병을 하고 있을 때에도 사회운동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 조언을 받기 위해 자주 찾아갔는데 싫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정성껏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88년 당시 정치권으로 가서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있었는데 이 분들의 활동이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있게 수용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김병곤 선배에게서 놀라운 점은 '5공청문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 분들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매우 따뜻한 눈길로 인정하고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정작 추구하는 바는 소외된 사람들의 해방이라는 날선 엄정함으로 일관했다.

한번은 저녁에 선배의 집에 가서 새벽까지 향후 민주화운동세력이 가야 할 '통일전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아침에 같이 집에서 나오면서 느닷없이 부탁을 드렸다. 앞으로 선배로 여

가지 않고(세상 인연으로 말하자면 나에게서는 중학교 8년 선배이기도 하다.) 스승으로 지도를 받겠다고 하자 선배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앞으로 스승으로 지도하고 저는 제자가 될 것이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한편으로는 젊은날 참스승을 둔 것에 감사함이 더욱 커지만 다른 한편 이렇게 선배를 어지간히 괴롭혔다는 생각도 든다. 스승과 제자로 그날부터 인연을 맺기로 하고 스승의 예를 올렸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선배가 세상 인연정리할 때까지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1년전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라면서 전화가 왔다. 기념사업회의 이난현 부장이었다. "김병곤 선배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모아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 열사들에 대한 자료전시를 하려는데 김병곤 선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그리고 보니 김병곤 선배의 치열한 활동과 지도자로서의 유명세에 비해 그가 남긴 자료는 정말 없다. 1987년 감옥에서 나와 민통련 정책실차장을 하면서 남겨놓은 기록 '노트 한 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몇몇 민주화운동관련 신문에 쓴 짤막한 글들, 그해 12월 16일 구로 구청사건 관련하여 재판에 나오는 사진 몇 장, 투병 중에 찍은 사진 몇 장이 거의 전부였다.

그렇지만 그가 남겨놓은 현대사에서의 족적과 미래를 열어가면서 가져야할 운신과 처세의 모범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나의 마음에 남아 있다. 그리고 적어도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남아서 미래를 인도할 지도(map)와 자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